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2. 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스웨덴, 튀르키예 압박에 PKK 관련자 추방
 - 12.4 언론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스웨덴이 튀르키예 활동 쿠르드노동자당(PKK)과 연관된 쿠르드 망명자를 튀르키예의 요구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보도
 - * 튀르키예는 自國이 불법화 하고 있는 PKK대원들을 스웨덴이 수용중이라고 비난하며 나토 가입 반대
- 獨, '트럭 테러' 위협에 주요 관광지 폐쇄
 - 12.5 獨 경찰은 일주일 前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이어 관광명소인 '뒤셀도르프 크리스마스 시장'을 겨냥해 "트럭을 몰고 돌진하겠다"는 테러 협박 전화를 접수함에 따라 同 시장 폐쇄 및 일대 경비를 강화
 - * '22.6월 베를린 쇼핑가에서 29세 남성에게 의한 차량 테러로 1명 사망·다수 부상

미주

- 美 국토안보부, 국내 테러 위협 경보 발령
 - 11.30 국토안보부(DHS)는 국가테러경보시스템(NTAS)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에 경도된 외로운 늑대나 소규모 그룹에 의한 종교시설·성소수자·소수인종 등에 대상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
 - * 또한, 테러단체나 극단주의자들이 이념 확산을 위해 온라인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분석
- 美 노스캐롤라이나, 사보타주 의심 공격으로 4만여가구 정전
 - 12.4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찰당국은 지난 3일 변전소 2곳이 수차례의 총격으로 파손돼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내 4만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겪고 있다고 발표
 - * 당국은 정전 원인을 무작위 총격이 아닌 변전소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추정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가니스탄 사망간주에서 이슬람학교 폭발사고 발생
 - 11.30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북부 사망간주 주도인 아이박에 위치한 자흐디아 신학교에서 폭발로 인해 민간인 19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으며, 대부분의 희생자는 학생이라고 보도
 - * 지난해 8월 탈레반 집권이후 민간인 겨냥 폭탄 테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 대부분 ISIS-호라산지부(ISIS-KP)가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
- 태국 남부에서 철로 폭탄테러로 화물열차 탈선
 - 12.4 언론은 태국 남부 송클라주 사다오 지역에서 고무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운송중이던 화물열차 20량 중 11량이 폭탄테러로 선로를 이탈해 심하게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보도
 - * ‘딥 사우스(Deep South)’로 불리는 태국 남부에서는 이슬람 반군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투쟁 중

중 동

- 이스라엘·팔레스타인, 갈등 심화로 테러 희생자 증가
 - 12.1 언론은 최근 이-팔 間 갈등 심화로 희생자*가 늘어나고 있으며, 이는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고, 이스라엘 新정부가 對팔레스타인 강경정책을 다짐중이기 때문이라고 발표
 - * 올해 사망자 수는 팔레스타인인 150명, 이스라엘인 31명

아프리카

- 西아프리카 국가들, ‘지역 평화유지군 창설’ 합의
 - 12.5 西아프리카 경제공동체(ECOWAS) 위원장은 지난 4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연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테러리즘과 안보 위협 대응 등을 위해 ‘지역 평화유지군 창설’을 결정했다고 발표
 - * ECOWAS 15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다음달 평화유지군 세부 운영방안 논의 예정

케냐, 알샤바브의 통근버스 겨냥 테러 공격

- '19.12.6, 17:30경 케냐 와지르(Wazir)發 만데라(Mandera)*行 50인승 버스가 북동부 와르가두두(Wargadud)와 쿠톨로(Kutulo) 지역 사이에서 무장세력의 급습을 받고, 승객 10명 사망
 - * 케냐 북동부에 소재한 소말리아 접경 도시
- 무장단체는 와지르州 쿠톨로와 워거더드 지역에 버스를 정차시킨 뒤 탑승객 56명을 하차시키고, 무슬림과 비무슬림 두 그룹으로 승객을 구분하여 10명의 비무슬림*을 현장에서 근접 총격 살해
 - * 경찰관 7명, 의사 1명, 민간인 2명
- 사건 직후, 소말리아 정부 전복을 통한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극단주의 테러단체 '알샤바브'*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 - * 최근, 同 테러단체는 소말리아는 물론, 케냐에 대한 테러 공세도 지속
- 한편, 케냐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'와지르-만데라' 운행 버스 노선의 경계를 강화하고, 국경 안팎을 넘나들며 준동중인 테러단체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력 경고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內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副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全域 및 케냐內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
 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
 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

